

유모어 소설의 성격과 의의

— 193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

林 善 愛

〈目 次〉

- | | |
|--------------------|--------------------|
| 1. 서론 | 3.3. 해피엔딩의 구조 |
| 2. 유모어 소설의 작가와 작품 | 3.4. 풍자로의 확대 |
| 3. 유모어 소설의 성격 | 4. 유모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
| 3.1. 인물과 사건의 유머러스함 | 5. 결론 |
| 3.2. 극적인 반전의 효과 | 참고문헌 |

1. 서 론

한국 현대 소설 목록표¹⁾를 살펴보면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 소설을 골계소설·사실소설·유치원소설·대화소설·유모어소설·풍자소설·탐정소설·역사소설·괴기소설·소년소설·대중소설·명랑소설·생산소설·현지소설·영화소설·해학소설·미래전쟁소설·정치소설·과학소설·애국소설·근로소설·현대소설·항공소설·농촌소설·개척민소설 등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르를 정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작품을 가진 유모어 소설²⁾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유모어 소설은 유우머 소설·올다웃을 이야기·폭소 소설·골계소설·해학소설·명랑소설 등의 명칭으로 발표되었는데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편,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4. pp.758~815.

2) ‘humour’를 국어사전에서는 ‘유 : 머’ 혹은 ‘유우머’로 번역되어 있고 문학비평용어사전(권택영, 최동호 편역, 새문사, 1985)에는 ‘유모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당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유모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내용을 가진 소설을 이러한 명칭들로 발표했던 것 같다.

유모어 소설에 관해서는 문학사에서 언급이 없었고, 기존의 연구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한 시대에 있었던 문학양식을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1930년대에서 차지하는 유모어 소설의 문학사적인 의미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모어 소설의 작가와 작품을 개관하고,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유모어 소설의 성격을 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문학사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대본은 원래 발표되었던 잡지로 한다.

2. 유모어 소설의 작가와 작품

우선 유모어 소설의 작가와 작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 품	작 가	게재지	발표년월
長足거미(골계소설)	鄭利景	每日申報	'27. 5. 1.
○ 午後四時(유모어 소설)	湖岩人	別乾坤	'32. 7.
○ 美男丁君의 放屁(유모어 소설)	朴泰遠	月刊每申	창간호(?) 뒷부분 없음
民客吳參奉(유모어 소설)	朴泰遠	月刊每申	'34. 6.
義眼綺譚(유우머 소설)	李鍾鳴	月刊每申	'34. 7.
술(유우머 소설)	安文卿	月刊每申	'34. 8.
○ 龍潭大將出世譚(유모어 소설)	李瑞求	中 央	'34. 11.
○ 巨人俱樂部(꼭소 소설)	李瑞求	中 央	'35. 1.
○ 流線型 夫婦道(유모어 소설)	李瑞求	中 央	'35. 7.
○ 新版家庭爭議(올다웃을 이야기)	柳在鳳	中 央	'36. 1.
○ 結婚太平記(유모어 소설)	李瑞求	中 央	'36. 1.
○ 恐怖狂時代(유모어 소설)	李瑞求	中 央	'36. 2.
○ 流線型(유모어 소설)	李民村	中 央	'36. 2.
○ 乾騷動(유모어 소설)	卞光昊	中 央	'36. 4.
○ 幸福의 運河(유모어 소설)	李瑞求	中 央	'36. 8.
○ 毛皮濟(유모어 소설)	朴慶浩	女 性	'37. 8.
夜半後記(유모어 소설)	金態超	女 性	'37. 12.
아주머님 전상서(유모어 소설)	朴慶浩	女 性	'38. 6.
愚夫賢妻(명랑소설)	俞母兒	新世紀	'39. 3~

○ 강 엘리스맷과 農村運動(유모어 소설) 朴慶浩 農業朝鮮 '39. 10.	
朴哲(유모어 소설)	方仁根 新世紀 '40. 3.
새(젊은안해의 手記)(유모어 소설) 崔永秀 女性 '40. 4.	
들窓 有罪(유모어 소설)	玄石連 新世紀 '40. 4.
현상시대(해학소설)	朴俊榮 신시대 '41. 2.
연애금령(명랑소설)	金永壽 신시대 '41. 5.

위의 표³⁾는 <美男丁君의 放屁>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編 國語國文學事典에 수록된 한국현대소설 목록(1906. <혈의 누> (이인직) ~1945. <벌통>(윤백남))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鄭利景 1편, 湖岩人 1편, 朴泰遠 2편(<丁君의 放屁>는 필자가 국회도서관에서 마이크로 필름을 보다가 찾은 작품인데, 후반부가 없어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李鍾卿 1편, 安文卿 1편, 李瑞求 6편, 柳在鳳 1편, 李箕永 1편, 卞光昊 1편, 朴慶浩 3편, 金態超 1편, 方仁根 1편, 崔永秀 1편, 玄石連 1편, 유모아 1편, 박준영 1편, 김영수 1편이다.

박태원, 이기영, 방인근은 당대에서 평가받는 소설가였고, 가장 많은 유모어 소설을 발표했던 이서구⁴⁾는 당대의 유명한 만화가·극작가였다. 이종명⁵⁾은 중의일보 기자였고, 최영수⁶⁾는 친일 신문이었던 대한신문의 주필이었고, 나머지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작가에 대한 조사는 좀더 시간을 두고 조사해야할 작업인 것 같다.

작품 수집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본은 구해볼 수 없었고, 영인본에는 필자가 구하는 작품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된 경우에도 없는 작품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유모어 소설의 성격을 밝히기로 한다.

3) <美男丁君의 放屁>는 필자가 찾은 작품이고, 원래의 목록에는 없다.

이하의 작품 인용은 출전을 밝히지 않고 이 표로써 대신한다. ○표한 작품들은 필자가 수집한 작품이며, 이 글의 연구대상 작품이다.

4)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편, 국어국문학사전, p.506 참조.

5) 한국신문편집인 협회·신문백년인물사전, 1988. p.697 참조.

6) 한국신문편집인 협회·위의 책, 1988. p.912 참조.

3. 유모어 소설의 성격

유모어는 기지와 함께 코믹한 것의 한 갈래로 해석된다. 즉 독자나 청중에게 해학과 즐거움을 주는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요소라는 의미이다.⁷⁾ 유모어 소설의 성격을 밝히는 일은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요소를 찾는 것이다.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유머러스한 요소를 찾고자 한다.

3.1. 인물과 사건의 유머러스함

유모어 소설은 익살스런 소재를 기지와 풍자적인 말로 다루어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소설⁸⁾이라고 했을 때, 우선 인물과 그 인물들이 펼치는 사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巨人俱樂部>에 나오는 양똥똥군은 생김새도 우스울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는 인물로 어려운 상황을 생김새와 재치로 풀어나간다.

비가 나리느냐 바람이 부느냐 할 때에 과원중에 인물녁으럽고 마라수작
잘 붓치고 너느레잘노코 열네발 잘패는 양똥똥군이 보다 못하여 벌떡이리스
며 지방 손님의 손목을 잡고
“여보십시요, 진정하십시요.”
하고 과장모르게 눈을 꿈쩍한다. 그 꿈쩍하는 태도가 구수하고 유덕스러워보
히는지라 손님도 녹으러저서……

이런 사건으로 양똥똥이 과장이 되자 온 회사 직원의 아내들은 남편을 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찍 잠들게 하고, 고구마를 먹이고, 돼지고기와 기름만 먹인다. 이런 과정에서 인물들은 갖가지 유머러스한 사건들을 펼친다.

<午後四時>에서의 주인공인 경애는 신여성으로 도둑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하는 기지를 보이는 애교와 유우미를 보인다.

“드린다고 헛스면 드리겠지요 그러케 협박까까지 할애 무엇잇시요? 여보서
요 드리기는 드리겠는데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당신가튼 이를 도적놈 맨

7) 권택영·최동호 편역, 앞의 책, p.50. 참조.

8) 신기철 외 편,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91.

들기는 실큰요. 엇재서 이런짓을 하게됐나 이야기나 좀해보서요. 드리기는 드릴터이니” …(중략)…”

“아이 정말 당신은 그럴듯한 남자구려 금년에 몇살이시우” …(중략)…”

“어데잇서가 무어요 당신 바로 옆헤 잇지안어요 나말이야”

이런 재치로 도둑을 돌려보내는 신여성의 모습과 바보스러운 도둑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룸펜대장출세담>에서 룸펜 대장 김천득은 차림새가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머리는 늘어지고 수염은 풀썩같이 우거지고 눈동자만이 광채를 가지고 있으며 누더기 양복, 헤진 모자, 그래도 신사라는 듯이 넥타이카라가 분명하고 발등만 덮여어도 양말도 신고 걸레가 되어어도 양복 포켓에 수건까지 꽂았다. 두말없는 고물신사’였다. 그는 자칭 룸펜 대장이었다. 김천득이 똥꿈을 사는 사건도 우스꽝스럽고, 꿈을 사서 도박을 하는 사건도 우스운 것이다.

<결혼태평기>는 <룸펜대장출세담>과 마찬가지로 구조를 가진 룸펜이 성공하는 이야기이다. 취직이 되기를 기다리는 룸펜인 철식은 인물 자체가 어슬프고 희극적이다. 맞선 보기를 권유하는 외삼촌과의 대화에서 유모어를 볼 수 있다.

“그래 장가말이야 장가가 얼마나 조흔지 너도 알때가 되지 안았네”

“아다마다요 그러나 잘못 고르면 야시장 물건 사는 격이 됩니다”

“야시장 물건이라니……”

“کمکم한데서 보면 그럴듯하고 골나보면 파치뿐이지요”

이 재치응답(repartee)⁹⁾에서 철식의 유머러스한 면을 볼 수 있다. 철식이 맞선을 보는 장면에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은숙이가 철식의 방 옷장에 숨어 있다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 은숙과 은숙 어머니의 대면 장면도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신관가정쟁의>에서 주인공 장만보는 엉뚱한 인물로 자신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도 어려워면서 자선사업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인물이다. 당장 굶고 있으

9) 기지의 경쟁대회에서 상대방의 말을 꺾어버리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즉시 받아 넘기는 것(문학비평용어사전, p.52).

면서도 돈 걱정을 전혀 안하고, 친척집에서 얻은 돈마저 지갑채로 기부해버리는 현실성이 없는 인물이다. 장만보가 똥을 누면서 신문에 난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지만 날짜가 지난 신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독자들을 웃게 만든다. 장만보라는 인물의 비현실성과 우왕좌왕하면서 벌이는 갖가지 사건들이 독자들을 우습게 한다.

<공포광시대>에서 주인공의 불안 의식과 행동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주인공은 잠들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불안해 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불안해서 미칠 지경인 주인공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을 극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유선형>의 경우 역시 현실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데서 유모어성을 획득한다. 얼음타는 논에는 벼가 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논에 물을 얼려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묻는다.

“너 식전내 논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나?”

“어름을 땀습니다.”

“어름을 타면 그 논에 벼가 잘되나?” …(중략)…”

“무슨 유익한 일이 있느냐 말이다.”

“유익한 일이야 많습지요. 신체는 만사지본인데, 첫째로 운동이 잘되니 먹는 대로 소화가 잘되웁고, 소화가 잘되니 몸이 건강하웁고…….”

아버지의 물음에 전혀 예기치 않은 동문서답을 함으로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애인에게 보냈던 편지가 들킴으로서 경수는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연애편지를 낭독하는 장면도 독자들을 우습게 한다. 경수와 명애가 도망친 뒤 그들 아버지인 조사과의 박참봉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도 우습다.

“원 이런 보았나 당신아들이 피지 않으면 내딸이 그런짓을 할리있소 아니 유선형의 러-브레터를 누가 먼저 써보냈소?”

“아니 그럼 내아들이 그런 「야부레다」를 쓰게된 원인은 누구때문인데.”

“저런 멀정한…… 사과인과 성환참원이 왜그리 뻔뻔스럽소.”

“저런 참봉인가 꿀벌인가 당신도 누구만 못하지 않은걸…….”

러브레타를 야부레다로 직위의 이름인 사과를 먹는 사과에 비해서 참외로, 직

위인 참봉을 벌꿀로 바꾸는 말장난¹⁰⁾은 독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건소동>은 목사인 채민화와 그의 부인의 대화에서 유모어를 발견할 수 있다.

夫 그럼, 나, 세계일주할 때 화란 「엠스터담」에서 사가지고온 그 「타이프 라이터」래도 가지고가-

妻 누가 화란물건이래면 허기가 진 줄아나.

夫 그럼 된수있나 저기걸린 저 김추사의 글시두폭이 줄잡아처도 오백원 짜리는 될터인즉 그것이나 띄어가지고 가-.

妻 오백원을 안동해준대도 나는 그 귀신같은 글씨는 아나가져가아.

夫 오백원만 따루준대면?

妻 스무갑절이나 해서준다면.

夫 만원! 이도독년!

이들 부부의 대화는 독자들에게 일상적인 웃음을 가져다 주고 마수련은 기지와 재치로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행복의 운하>에서는 공부 못하는 김영철이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보다 더 신나게 산다는 사건 그 자체를 작가의 설명으로 독자들을 흥분시킨다. 취직이 되지 않았으면 감히 넘보지도 못할 옥경과의 결혼 약속은 독자들을 즐겁게 만든다.

<모피제>는 모교수의 외모와 괴상한 습관에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모강사의 괴벽이라면 생전 모자를 안쓰고 단니는 것. 남의 명함을 받아보구는 도루 주는 것. 있다금 혼자 무에라구 중얼중얼하는 것. 수염이 안나는 것. 나이 사십이로되 장가들 생각을 안하는 것. 있다금 넥타이를 잊어버리고 학교에 출근하는 것 ... (중략... 이저버리기 잘하는 인물. 허식을 할 줄 모르는 인물. 키가 멋없이 크고 게다가 이성에 흥미가 도모지 없는 사실.....

이런 모교수가 노처녀 교장인 피교장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사건은 독자

10) pun(뎌)인데 소리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뜻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낱말을 이용한 놀이로서 희극적인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문학용어사전, p.250.참조)

들을 웃게 만드는 요소이다.

<강엘리사벳과 농촌운동>에서 강엘리사벳은 지식은 많으나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킬 줄 모르는 인물로 인물자체도 코믹하지만 강엘리사벳이 벌이는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사건들—굶주리고 헐벗은 농촌에다 테니스장, 탁구장 등의 설치—이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3.2. 극적인 반전효과

유모어 소설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그 구성에 있어서 독자들이 뜻하지 않는 길 즉, 주인공이 우연성에 의해서 행운을 잡고 승리를 하는 극적인 반전효과이다. 그래서 작품의 초반부에 주인공이 좀 모자라는 듯하고 비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지던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정상인 중에서도 아주 준수한 인물로 되어진다.

<午後四時>에 있어서 주인공 경애는 그녀의 집에 잡입한 도둑을 채치과 애교로써 달래는 과정에서 지금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도둑과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경애는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신여성의 부정적인 면을 갖춘 그런 인물로 보이지만, 그 다음날 남편과 함께 도둑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함으로써 극적인 반전효과를 가지고 경애의 이미지는 재치있는 여성으로 부각된다.

<룸펜대장출세담>에서도 룸펜 대장 김천득은 전반부에서는 억지부리는 거지로 그려지고 있는데, 우연히 똥꿈을 사는 것으로 그에게 행운이 오고 그는 제약회사를 사서 사장이 된다. 거지에서 사장으로 신분상승은 극적인 반전효과라 할 수 있고 독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놀라움과 즐거움을 준다.

<결혼태평기>에서도 룸펜인 철식은 취직과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은숙을 만나 장모가 될 사람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게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판가정쟁의>에서도 장만보는 현실성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나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는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행운의 요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반전을 이룬다.

<행복의 운하>에서는 김영철은 학교에서는 공부도 못하고 품행도 방정하지 못한 열등생이었는데 다행히 레코드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학교의 열등생도 사회의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후반부에서 김영철이 옥경과

의 갑작스런 결혼이야기는 독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정상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관계인데, 김영철의 우연한 성공으로 옥경과 맺어지게 된다. 이런 반전이 독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준다.

<전소동>에서도 목사인 채민화는 마수련의 임신으로 아내에게 의심을 받게 된다. 목사는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아내는 믿어주지 않는다. 후반부에서 마수련의 등장으로 아내가 했던 오해는 극적으로 풀어지고 채민화는 정직한 목사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모피제>에서도 모교수는 이성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고, 피교장은 콧대높은 노치녀로 알려져서 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을 것처럼 사건이 진행되다가 후반부에 가서 갑작스럽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이런 예상치 못한 극의 반전으로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면서 웃음을 준다.

<강엘리사벳과 농촌운동>에서도 미국유학을 한 강엘리사벳이 농촌운동을 한답시고 농촌에 내려왔지만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되고 사치만 하는 인물로 비추어진다. 늘 고상한 척하던 강엘리사벳은 마을 사람들의 가짜 귀신놀이에 혼비백산해서 쫓겨간다. 그 모습이 독자들을 우습게 만든다. 강엘리사벳의 결혼소식으로 가짜 귀신놀이를 주동했던 무리 중의 한 사람인 이양순은 강엘리사벳의 결혼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는데 그 축전에 문구가 빠져서 축전이 아니고 악담을 보낸 격이 되어서 강엘리사벳에게 이양순이 당하는 반전효과는 독자들을 더욱 우습게 만든다.

3.3. 해피엔딩의 구조

희극이란 용어는 관습적으로 극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희극적 형식이 소설과 실화체적인 시에도 또한 나타난다.¹¹⁾

희극이란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할 목적으로 소재들이 선택되고 다루어지는 작품을 말한다. 즉 여러 인물들과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깊은 관심보다는 즐거운 주목을 끌고, 우리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감을 가지게 되며, 보통 사건 전개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행복하게 되고¹²⁾ 언제나

11) 문학비평용어사전 p.286.

12) 문학비평용어사전 p.286.

승리를 생취하게 된다.¹³⁾ 이런 일반 논리가 우리의 유모어 소설에도 적용된다.

<午後四時>에서는 주인공 경애가 도둑을 채치와 애교로 따돌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남편과 이사를 함으로써 아무런 피해없이 도둑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롬펜대장출세담>에서도 롬펜 대장 김천득이 도박에 성공해서 제약회사를 사고 그 회사 사장이 된다는 결말이다.

<결혼대평기>에서도 롬펜 철식이 결혼도 하게 되고 장모될 사람의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됨으로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판가정쟁의>에서도 실직자 장만보는 친척으로부터 얻은 돈마저 지갑채로 기부한 것을 계기로 취직이 되는 행운을 안고 한달치 월급을 선불로 받는 기쁨까지 맛보게 된다.

<유선형>에서도 경수와 영애는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동거를 하고 끝내는 결혼 승낙을 받아낸다. <건소동>에서도 목사인 채민화는 아내로불켜 마수련과의 관계를 의심받는다. 결국에는 마수련의 증명으로 목사는 결백함이 드러난다. <행복의 운하>에서도 학교성적은 안좋아도 취직이 된 김영철이 교장의 둘째 따라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모피제>에서도 이성애에 관심이 없고 괴상한 취미만을 가진 모교수가 노처녀인 피교장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게 되는 행복한 결말을 가진 작품이다.

<공포광시대>나 <거인구락부>는 각각 작품의 끝까지 공포에 질린 주인공의 모습, 과장이 되려고 살려우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강엘리사벳과 농촌운동>은 강엘리사벳의 패배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기법을 사용했으므로 해피엔딩의 결말과는 거리가 있다.

3.4. 풍자로의 확대

풍자는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또는 모욕·분노·멸시 등의 태도를 적용하여 주제를 축소시키는 문학의 기교이다. 코믹한 것이 웃음을 작품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 데 반하여, 풍자는 ‘조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코믹한 것과 다르다. 즉 이것은 웃음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여 작품 자체의 밖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 대항하는 것으로 비판의 작용을 하기도 한다.¹⁴⁾ 이 글의 대상인 유모어 소

13) N.프라이.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1982. p.65.

14) 문학비평용어사전, p.257.

설도 세대를 비판하는 풍자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다.

<午後四時>는 신여성의 결혼·이혼·재혼에 관해 가볍게 여감을, <결혼태평기>는 신·구의 갈등을 통해서 구(중매결혼)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신판가정쟁의>도 ‘동포를 구제하는’ 자선사업에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고, <공포광시대>에서는 문명의 이기로 오는 현대인의 불안을 극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현대의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유선형>에서는 이기적인 신학문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으며 <전소동>에서는 조선에 이름난 한학자인 예산 호유발의 무책임한 사생활을 비판하고 있다. <행복의 운하>에서는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서도 우등생인지, 학교에서의 열등생이 사회에서도 열등생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결국에는 융통성이 없는 학교의 우등생을 비판하고 있으며, <강엘리사벳과 농촌운동>에서 농촌운동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론적인 농촌운동가인 강엘리사벳을 3인칭 객관적 시점으로 비판하고 있다.

1930년대의 유모어 소설은 단순한 웃음만 주는 코믹의 단계를 넘어선 세대를 풍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4. 유모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세계적으로 30년대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 움직임이 도처에서 활개를 치던 시기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이 파산적으로 폭발된 대공황 이후 이탈리아에서 파쇼정권이 강화되었고 독일에서 나치스가 집권했으며,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패배해지고 일본에서도 이른바 <다이쇼오(丈正 데모크라시)>가 붕괴되었으며,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자유는 후퇴하고 반동적으로 민중의 탄압은 거세어졌다.

이와같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1930년대는 일본으로부터 더욱더 탄압과 희생을 강요받았다. 30년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일부 주어졌던 약간의 자유와 여유가 하나씩 하나씩 유린되고 모든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무자비한 전쟁체제에 동원되어 가던 시기¹⁵⁾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적으로 30년대는 KAPF의 해체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카프의 계급투

15) 염무웅, 「1930년대 문학론」,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p.427.

쟁적인 사회문제를 부정하고 문학은 문학 이외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문학적 특징은 우선 문인들의 숫자가 증대되었고, 서구문학의 수입이 보다 직접화되고 그 영향력이 보다 증대되었고, 작품 창작의 기술적 세련과 문예이론의 전문화¹⁶⁾로 요약되고 있고, 1930년대의 소설적 경향은

① 계급의식의 약화 : 30년대까지 이기영, 韓雪野, 金南天 등이 계급투쟁의 社會意識을 가지고 작품을 쓴 프로문학이 쇠퇴해가는 경향

② 인간성의 原型의 探究 : 李孝石, 鄭飛石과 같이 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생활에의 人間性的 원형을 탐구하려는 경향

③ 토속적인 인간생활의 美化 : 金裕貞, 李無影, 朴榮濬, 金東里와 같이 생활의 관습에 젖어 생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人關係를 추구해간 경향.

④ 현대의식의 자각과 기법의 혁신 : 이상이나 최명익, 허준과 같이 소의 고독 등의 현대의식을 심리주의의 새로운 기법으로 작품을 쓰거나, 채만식이 나 유진오와같이 도시인의 우울한 생활의식을 그리는 경향.

⑤ 인간생활을 확대 :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박종화 등의 30년대의 작가들이 원숙한 경지에서 「사랑」 「운형궁의 봄」 「三代」 「금삼의 피」 「탑」과 같은 인간 생활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확대해서 그리려는 경향¹⁷⁾

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유모어 소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문학사의 대부분이 유명작가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어느 문학사나 소설사에도 유모어 소설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유모어 소설의 작가 대부분이 당대의 무명작가였고, 박태원, 이기영과 같이 이름이 있었다고 해도 한 두 작품만 창작했으므로 더욱더 당대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모순된 현실의 문제가 문학적인 소재가 될 수 없었던 1930년대의 문학적 상황에서 유모어 소설은 상업주의적인 저어널리즘에 힘입고 나온 흥미 위주의 대중소설의 한 갈래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의 문학성에 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희망없는 30년대를 살아가는 독자 대중에게 웃음을 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

16) 염무웅, 위의 글, pp.428~431 참조.

17) 구인환, 한국문학 그 양상과 지표, 삼영사, 1978, p.188.

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서 결론을 대신한다.

한국 현대소설 목록표를 살펴보면 1930년대부터 소설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르를 정해서 발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작품을 가진 유모어 소설을 대상으로 유모어 소설의 작가와 작품을 정리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서 유모어 소설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사적 의의도 정해보았다.

유모어 소설은 ‘유우머 소설’, ‘유모어 소설’, ‘웃다웃을 이야기’, ‘폭소 소설’ 등의 명칭으로 발표되었는데,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내용을 가진 소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모어 소설의 작가 중 박태원, 이기영, 방인근은 당대에서 평가받는 소설가였고, 가장 많은 유모어 소설을 발표했던 이서구는 당대에서 이름높은 만문가·극작가였다. 이종명은 중의일보 기자였고, 최영수는 친일신문이었던 대한신문의 주필이었고, 나머지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유모어 소설은 인물과 사건의 설정에 있어서 유머러스하고, 극적인 반전으로 독자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즐거움의 효과를 준다. 그리고 유모어 소설은 반드시 해피엔딩의 구조를 가지는데, <공포광시대>, <거인구락부>, <강엘리사벳과 농촌운동>은 예외적이었다. 유모어 소설이 독자들에게 주는 웃음은 일상적인 웃음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웃음으로 확대되는 것도 있었다.

유모어 소설은 작품의 수적으로나 작가들의 명성도에 비례해서 당대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30년대의 문학적 상황에서 유모어 소설은 상업주의적인 저어널리즘에 힘입고 나온 흥미 위주의 대중소설의 한 갈래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작품들의 문학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희망없는 30년대를 살아가는 독자 대중에게 웃음을 주려고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자료가 없다보니 주관적인 서술에 치우친 것 같다. 부족한 점들은 다른 글에서 보충하기로 한다.

參 考 文 獻

1. 기본자료

別乾坤, 月刊每申, 中央, 女性, 農業朝鮮

2. 사전류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U. S. A, 1974.

권택영 · 최동호 편역,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문사, 1985.

김윤식 편저,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6.

신기철 ·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91.

신문백년인물사전, 한국신문편집인 협회,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웅진출판사, 1991.

3. 논 저

구인환, 한국문학 그 양상과 지표, 삼영사, 1978.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출판사, 1973.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염무웅, 「1930년대의 문학론」,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1987.

프라이 N,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1982.

포오스터, E. M. 소설의 이해(이성호 역), 문예출판사, 1975. 외 다수